

재발방지 北 변화 감지... 개성공단 불씨 살리기

■ 北 7차회담 14일 개최 제안에 정부 수용

경협보험금 지급에 대응... 책임전가 수순밟기 지적도

북한이 7일 오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7차 실무회담을 14일 열자고 전격 제안함에 따라 꺼져가는 개성공단사업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북한의 이번 회담 제의는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데 대한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시점상 통일부가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을 발표한 뒤 한 시간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제안은 우리 정부의 '중대결단' 실행에 대비해 준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이 사실상 중대결단의 하나로 개성공단 폐쇄 수순밟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정말 공단 폐쇄의지가 있는지를 지켜보던 북한이 서둘러 대응 카드를 던졌

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특별 담화에서 회담을 제안하며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 및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등 사실상 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조치를 밝혔다. 일단 북측이 제안한 선(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북측이 리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했던 출입제한조치와 근로자 철수조치를 원상대로 복구시키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핵심쟁점인 재발방지와 관련하여서도 북한의 변화가 감지된다. 조평통 대변인은 특별담화문에서 "북과 남은 공

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열린 6차 실무회담 때 제시한 합의서 수정안에서는 "북과 남은 개성공단 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며 그에 제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서는 "그에 더해지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대목을 빼 눈길을 끈다.

북한은 종전까지는 남측에서 벌어지는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김정일의 달려박스' 등의 자극적인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이 대목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재발방지에서 변화를 보였다고 보기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책임전가를 위한 수순밟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주요 일정

- 2013.3.27 北, 개성공단 인접권 재설계 시공된 남북간 군 통신선 차단
- 3.30 北, 중앙특수개발지도총국, 중원 특수시 개성공단 폐쇄 발표
- 4.3 北, 개성공단 통행 제한,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
- 4.9 北, 북측 근로자 출근 안내 사실상 가동 중단
- 4.14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南 대화 제의 거부
- 4.17 北, 개성공단인주기업 대표 박병철 불허 통보
- 4.25 정부, 개성공단 사태 해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제의
- 4.26 북한,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 개최 거부, 정부, 개성공단 전무위원 전원철수 결정
- 4.27 개성공단 재유인원 첫 12명 귀환
- 5.3 한지에 남아 있던 마지막 인력 7명 전원귀환
- 개성공단 잠정폐쇄
- 7.4 정부, 개성공단 실무회담 판문점 개최 제의
-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6일 판문점 북측 통영각 개최 합의
- 7.6~7 개성공단 1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 합의
- 7.10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 북한,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제의, 정부, 이산가족 회담만 수용
- 7.11 북한,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보류 입장 발표
- 7.12 정부, 개성공단 실무회담 수석대표 서훈 - 김기영으로 교체
- 7.13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
- 7.17 개성공단 4차 실무회담
- 7.22 개성공단 5차 실무회담
- 7.25 개성공단 6차 실무회담, 결렬
- 8.7 북한,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 개최 제안, 정부, 북 제안 수용(14일 남북 개성공단 7차회담 예정)

지자체 대규모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정부 지정 전담기관이 맡는다

앞으로 지자체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맡게 된다. 또 지자체의 부채관리가 강화되고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

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임의로 선정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부채·보조금 지원 관리 강화

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 지자체 대규모 투자사업은 안

또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부채관리 범위를 지자체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와 우발부채(BTL, 보증 등)까지 확대해 재정위험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보조금을 다룬 용도로 사용했거나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벌칙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KDI 공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치분신청

유가족·해군장교들 "사실 왜곡, 숨진 장병 명예 훼손"

천안함 유가족 대표와 해군 장교 등 5명이 7일 오전 11시 5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인들의 법무대리인 김양홍 변호사는 가치분 신청에 앞서 취재진에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왜곡의 자유는 없다"며 가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해군 측도 영화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 법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 이던 심승섭 준장과 해남구조대장으로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환 대령, 천안함 함장이던 최원일 중령, 천안함유가족협의회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 5명이다.

김 변호사는 "영화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이미 5개 국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설명에도 북한의 소행으로 명시돼 있다"며 "영화는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언급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위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실을 왜곡한 영화가 그대로 상영되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숨진 46명의 장병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신청인의 입장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다음 달 초 일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법적 공방으로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대인예술시장 작가회의 '다다' 회원들이 7일 오후 5시 대인예술시장 내 '갤러리 다다'에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인시장 작가들도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불법 대선개입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광주 대인예술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인예술시장 작가회의 '다다'(회장 이기성) 소속 회원 등 작가 30여명은 7일 오후 5시 시장 내 '갤러리 다다'에서 발표한 '한국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려퍼집니다'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부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작가들은 "국정원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넛심'과 민심을 호도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허위발표를 통해 국정원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자의적으로 짜

갑기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유출공개해 국정원 대선개입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다시 인용해 논란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중해야 할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NLL 용인 발언 등 다른 위법행위로 보호막을 치고 있다"며 "마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의 수장이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작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셀프 개혁'을 주문하고, 1992년 대선 당시 지역감정을 총동원한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민심을 헤아리고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작가들은 시국선언문 발표에 이어 '갤러리 다다'를 흰 천으로 뒤덮은 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책임자처벌' 등의 글을 적는 행위극을 선보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설·추석·어린이날 대체휴일제 '가닥'

설·추석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치면 공공부문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당·정·철 회담을 하고 이란 내용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제·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일단 설·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되 어린이날의 적용 여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한다. 여기에 어린이날까지 추가되면 향후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물 2974㎡
감정가액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액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액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흥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동화·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Goodboodongsan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시종횡월간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기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사모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원 : 00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4억
- ▷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보증금 2억8천.월810만)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보증금 8천.월430만)

대지/전답

- ▷ 신가동(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매 3억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창고.공장 적합)
-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10억(펜션용지.귀농지.전원주택 적합)
-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대 660㎡.신축주택 포함)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펜션.관광농원등 다용도)
- ▷ 여수 들산읍 전 1,874㎡ 매 2억(비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용 4.5억 포함)
-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